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영혼의 쉼터 코이노니아 휴게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행 2:1~4). 그 충만한 모습의 중심에는 사도의 가르침 즉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고,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행 2:42).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교제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넘쳐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교제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바로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제 곧 개조공사가 끝나면, 코이노니아 휴게실은 대하·청년부 주도 하에 운영되는 영혼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휴게실 내부 디자인에서부터 세부적인 운영까지 전적으로 젊은이들(대하·청년부)이 주도하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찬국일꾼을 키우는 일이 코이노니아 휴게실 운영의 주된 목적입니다. 휴게실의 수익금으로 후원강화생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느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분위기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고후 2:15)가 코이노니아 휴게실에 진동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봉당 지하 1층 시설공사와 아울러 제2교육관 1층 코이노니아홀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중에 마치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로므로 역사하느니라"(론 1:6).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

보장된 약속

구약의 약속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중복된 표현이다. 약속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가리킨다. 신약은 구약을 가리켜 구별하기 위하여 쓴 표현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약속의 본질도 하나님이 맺으신 같은 언약의 중심에 있다. 언약에는 특징이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계약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거기에는 국제적으로 맺어지는 조약도 있었다(수 9:14~15). 이러한 약속은 엄중하고 구속력이 있는 형태까지 상승되기도 하였다(수 10:6~7). 이는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를 서약하는 파트너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의 기본적인 특징 중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의 약속, 시내산의 언약, 노아의 의로운 순종, 성전 짓기를 원하는 다윗이 그 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다(창 9:11~13; 삼하 7:8~9, 13). 진정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므로 그 언약을 책임지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스스로 매일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보장하셨다. 셋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모든 언약에는 반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느 것도 성취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언약이므로 이 언약

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계약 조건을 생각하면 모든 언약은 조건적이다.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 만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존재하였던 어떤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언약은 조건적(신약은 신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언약이 보여준 저주로 고통을 당했던 세대가 많았다(창 32:4~7). 그러나 언약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의 순종과 축복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목적에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이해되고 완성되고 실패하여 또 다시 이해되는 패턴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제 구약 안에 연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하나가 다른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마침내 신약에서 예수 자신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끌어져가는지를 살펴보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어디에서도 언약으로 이 내용을 말해 주는 곳은 없다. 단지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창 3:15)과 뱀을 물려야 하는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하나님 은혜의 은전만 있을 뿐이다(창 3:19~20). 이것으로 볼 때 인간의 타락 이전이나 이후에 에덴에서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다. 아멘.

WHAT ARE YOU LOOKING AT?

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11)

During Jesus' last moments in this world, His disciples stood watching Him ascend into heaven. They had been very depressed over His crucifixion death, but were very excited to be near the resurrected Jesus. In their excitement, the disciples asked Jesus,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Ac. 1:6). Jesus didn't give them the answer they wanted; in fact, He told them that it was none of their business.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Ac. 1:7). He told them that their business was to proclaim the gospel. The disciples questioned Jesus about kingdom restoration, but Jesus answered with a call to witness. Then He ascended from the Mount of Olives to heaven. The disciples' excitement diminished as Jesus rose into the air. They felt like they were losing everything as they stood with their eyes heavenward! They scanned the sky with teary eyes for a last look at Jesus Christ,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Ac. 1:10). Two of God's angels asked the disciples,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 1:11). The angels' question was a reprimand for Jesus' disciples. They needed to stop gazing.

You must stop gazing and obey your Lord. Jesus' order was for them to wait for what the Father promised and not to depart Jerusalem, "Gathering them together, He commande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Ac. 1:4). The disciples are not now in Jerusalem, so they must leave the Mount of Olives and go to Jerusalem. When they arrive there some great things are going to happen as Jesus promised. Some will find the will of God for their lives, and others who know God's will but have not begun to obey will begin to obey. When the disciple's obey God's first directions others will come. Right now, they must stop gazing and get going, just like we need to do today.

The disciples had to stop gazing and go to a very important prayer meeting,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a gathering of about one hundred and twenty persons was there together" (Ac. 1:14~15). The disciples went to Jerusalem, to the upper room, and put away all differences to pray sincerely. They prayed like Psalm 119:18, "Open my eyes, that I may behold wonderful things from Your law." They all waited for the coming Holy Spirit in concentrated

prayer. They stopped gazing to attend to this important prayer meeting. They prayed for ten days,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 2:1~4). Their patient waiting and prayers came to fruition as they all received the Holy Spirit.

You must stop gazing and start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 1:8). The disciples were to be Jesus' witnesses, as we are also. They launched a great evangelistic outreach. Peter's one sermon drew three thousand souls to Jesus,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Ac. 2:41). Sadly, evangelism is the missing word in the church today. We may enjoy wonderful fellowship, but we must return to the great task on earth. After Pentecost, evangelism exploded in Jerusalem. The whole book of Acts is actually a mission book. Jesus has given us His great commission, "And Jesus came up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How do you respond to Jesus' great commission now? What are you doing to evangelize this earth? Please stop looking at other interesting things and focus on Jesus.

You must stop gazing and live in the light of Christ's return. The angels questioned what the disciple's were looking at. We have to live waiting for His return. This same Jesus who ascended into heaven will one day descend from heaven. The One who cares for the lost and dying will return. When He does we must stand before Him and give an account of our stewardship.

My dear friends, there is no time to gaze. Life is too short to waste time and there are too many souls crying right now. Let's go and proclaim the gospel! Why do you want to stand and gaze? Get on the move; seize the moment to serve our coming Lord. We have no business living ordinary lives in such extraordinary times. Stop gazing and proclaim Jesus Christ. Amen.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1)



김성판 목사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매우 낙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곁에서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행 1:6)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흥분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으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아쉬워하며 하늘을 뚫어지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행 1:10). 하나님의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천사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도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순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첫 명령에 순종할 때 다른 이들도 나아올 것이었습니다. 즉시, 그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나아가야 하며 오늘날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중요한 기도모임으로 가야한다

제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로 중요한 기도를 위해서 가야 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백 이십 명이나 되더라”(행 1:14~15).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모두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시편 119:18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들 모두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기도

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그들의 끈기 있는 인내와 기도는 그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상명령을 실천하라

여러분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지상명령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천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그러나 슬프게도, 복음 전도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한 친교를 나누며 즐길 수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복음 전도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사실상 선교를 담은 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지금, 여러분은 예수의 지상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재발, 세상의 매력적인 일들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재림을 소망하라

여러분은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 죽어가는 자들을 구하시길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사역을 보고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삶은 너무나 짧고, 바로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서서 영롱한 곳만 쳐다보려 하십니까? 움직이십시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섬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아멘. ■

십자가 복음

모세의 어머니 (히브리서 11:23-27)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며, 아버지 는 야므람이다 (출 6:20).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요게벳은 미리암과 아론을 자녀로 두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서 심한 노역에 시달렸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태어난 아이가 남자일 경우 모두 죽임을 당하던 때였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다.

●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모세의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출 2:2).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하였다. 그녀는 당시 열악한 상황을 알았기에 태어난 아이가 남자임을 알고 무척 슬퍼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아기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미니”(행 7:20). 모세를 보호하던 3개월간의 시간은 눈물과 기도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남자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였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름다운 아이 모세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 위험을 감수하였다

모세의 어머니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였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위하지 아니하였으며”(히 11:23). 그녀는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다(행 5:29).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역을 무시위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히 11:27).

● 믿음으로 아들을 키웠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인을 붙들어 주셨고,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 믿음의 기도는 모세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히 11:24). 특히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맡겨지는 중요한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딸인 미리암의 믿음을 보더라도 모세의 어머니가 드린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다(출 2:7~10).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믿음은 배운 모세와 미리암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 고난 받는 것을 가르쳤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믿음을 통해서 모세는 고난 받는 것을 가르쳤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히 11:25). 당시 보잘 것 없었던 노예 이스라엘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6).

지금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가웃거리며 다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와 믿음뿐이다. 이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속화 되거나 넘어지고 있다. 현재 최고로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의 가정을 보아도 선한 것이 없지 않은가?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당시처럼 오늘날도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때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주님이 맡겨주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며 믿음의 기도로 돌본다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르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79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공판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병 고침의 이적을 체험했거나 목격했던 사람들이었다(마 8:18, 15:30, 19:2). 그런데 이제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였다.

이 무리 중에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지도자들도 있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항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종교인들이었지만 참 진리는 없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들에게 고난 받아 죽임 당할 것을 예언하시기도 하셨다(마 8:31; 마 16:21). 이들은 자신이 세운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깨뜨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방도를 찾고 있었다(마 14:1~2, 10). 가롯 유다가 찾아간 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이들이었다(마 26:3~4, 14).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종교지도자들의 애썼사람다, 즉 하인들이었다(마 14:54; 마 26:58). 이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마 14:48).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들을 보았고, 들었던 자들이었기에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한 것이다. 또한 무리 중에는 성전의 경비대장들도 있었다(눅 22:4, 52; 행 5:24).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한결같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연구하던 자들, 말씀대로 제사를 주관하던 자들,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

쳤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가 왔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항상 무리가 있었다. 이 무리는

지던 자들, 모든 종교 예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고 지키던 자들로, 무리 안에는 종교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뿐이었다. 그리고 이 무리의 길잡이가 되어 이끌던 자는 누구인가? 바로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꼭 필요한 재정 담당자였던 가롯 유다였다(행 1:16). 그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신호까지 만들고,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는 당부의 말을 할 정도로 치밀했다(마 14:44).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친히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의 실질적 리더였던 것이다(마 14:43; 마 26:47; 요 18:3).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자.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봉사도 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경건하고, 더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처럼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항상 존경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할 뿐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 한 손은 세상, 또 다른 손은 성경에 얹고 분위기에 따라 적당히 맞추어 가려는 교묘함만 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는 훌륭한 자들이 분명하지만 헌신적 자, 준비된 자는 아니었다. 어떤 헌신과 준비인가?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는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 매주 필요새벽기도회(약 4400여)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망 끝까지

주님의 동행하심

선교파송 예배를 드릴 때부터 선교가 처음이라 빨리 비행기를 타고 싶은 마음만 앞섰다. 선교지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고, 피곤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렇게 첫 사역을 나갔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부터 앞섰다. 막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하려 해도 전도 언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일대일 전도를 할 때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현지인과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도 같이 따라 하지는 않고 웃기만 하여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그리고 빨리 쉬고 싶다는 마음만 들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사역 평가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나 자신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대신 전해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하루를 돌아보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사역한 것이 정말 죄송스러웠다. 이후 사역을 할 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싶었다.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그들이 영접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마다 모인 어린이들의 눈을 볼 때 정말 순수해 보였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서 편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앞으로 선교를 나갈 때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선교사역을 하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사역을 하며 내 마음이 커지고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 것 같았다. 정말 이번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와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최호일(고등부)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주님이 허락한 기사를 만났다. 우리 팀원들은 콘길에서 차로 20~50분씩 더 들어가 있는 오지에 흩어져 있는 집 1~2채를 찾아 들어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뜨거운 피아발을 걷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외딴집을 발견하고 함께 걸어 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 줄 때 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본다면서 복음을 전해준 것에 감사하더라 눈물을 글썽했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이 들었다. 귀가 어두운 노부부는 목청껏 외쳐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도해 줄 때 떨리는 손으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면서 고마워했다. 눈독질, 발목질을 건너 무작정 기도하면서 찾아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였다. 어린이 사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거의 모든 학교가 절 안에 있었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던 다른 지역 어린이들과 달리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다. 우상 숭배 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안타까웠다. 지도에는 도로가 있는데 실상은 도로가 막혀 있거나 없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되기도 했다. 주님의 계획은 내 뜻과 내 계획과는 다를 때가 많았다.

문연식(인수집사, 16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0일(목)~5월 18일(수)	4교구 1팀	정봉성
5월 11일(수)~5월 19일(목)	11교구 2팀	김복수
5월 11일(수)~5월 19일(목)	21교구 1팀	한진옥



여리를 가나 동역자가 있었다

정말 12억의 인구에 걸맞게 선교지 거리에는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곤 하였다. 때로는 많은 사람으로 당황하기도 했지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인 군중을 몇 개 조로 나누어 전도하여 열접기까지도 마칠 수 있었다. 여리를 가나 루디아가 있었고, 삼개오가 있었으며 동역자가 있었다. 많은 사람 속에 한 여인이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가족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였다. 또한 군중 뒤편에서 물고리미 우리를 바라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하는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등,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을 주민을 집중시키기 위해 주위를 조용하게 풍용하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었다. 은혜와 감사 속에 선교를 마쳤으나 그곳 불쌍한 영혼들이 육도가 되어 예수님의 교회가 서고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예수님께 영감을 돌린다.

김 근(인수집사, 8교구)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

선교를 떠나기 이틀 전, 현지에 있는 한국섬유 공장에서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나서 혹시나 선교가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교회에서 파송예배를 드리고 경유지인 싱가포르 출발하게 되어 안도하였습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들이 모여 함께 열접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게 됨은 성령님께서 이 무슬림 국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약 250명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은 국교인 무슬림 나라에서 주님의 섬기가 아니며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막연히 불교를 믿듯이 그들도 무슬림 교도였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일부 열성적인 신도 외에도 대부분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로 인지하여 알라라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열리게 하는 무슬림의 전도 기지로 방글라데시를 택하심을 은혜로 깨달으며, 놀라운 주의 섬기가 역사하는 축복된 나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수집(집사, 19교구)

기도가 힘

너무도 뜨거웠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감동과 감격으로 뜨겁게 은혜 받게 하여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마을 축회전도 시 할머니가 자기 집에 가지고 나를 끌어당기셨다. 할머니는 가족을 모두 불러모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들에게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온 가족이 영접하였다. 손에 든 전도지를 볼 일도 간절히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떠나왔다. 복음을 듣고 찾아가간 마을에서는 성경을 달라고 하는 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의 임무는 축회전도와 노방전도 시 찬양을 한 뒤에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다. 나는 준비된 내용으로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선교기간 동안 아내가 기도후원자로서 기도원에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힘이 됨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정우성(장로, 18교구)

내 안의 베드로

부와 명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던 베드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가졌던 베드로. 부와 명예의 기준으로 본다면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가진 나. 어렸을 적부터 '종족'보다는 '결핍'이라는 단어와 더 친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살아가는 나에게 누군가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줄 사람,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

어렸을 적 어머니 손을 잡고 나온 교회를 어는 순간부터 나의 의지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쯤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더욱더 멀어졌다. 때론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바로 그런 모습에서 나는 내 속의 베드로를 발견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많은 기적을 보았던 베드로. 하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바로 나였다. 주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나의 삶에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믿지만 나는 항상 죄를 짓는다. 어떤 경우에는 베드로보다 더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나의 비전은 직업전선교사이다. 나의 재능을 살려 주님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때론 주님이 돌아가시는 날의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온 것처럼.

원종헌(대학부)

☆ 선생님! 제가 원래 낮가림이 심해서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예뻐도 들어가서 설거지 됐어요. 좋은 말씀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나중에 저도 교회 선생님이 되어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예민)

☆ 매 주마다 변함없이 온 모습으로 말씀을 나눠주시는 선생님!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박종구)

☆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생각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헌)

☆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남종우)

☆ 선생님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주시고 외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문경진)

☆ 선생님, 주님의 말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홍)

☆ 바쁘신 직장생활 와중에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언제나 저희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준바해주시는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하구요! 사랑합니다! (이경숙)

☆ 항상 열심이 저희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용케 봐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구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임내세요! (최보영)

☆ 선생님, 언제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더욱 많은 말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민호)

☆ 바쁘신데도 힘든 내색 안하시고 항상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도 안 듣고 말씀 투성이지만 저희가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 아니요?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변예영)

고등부

"사랑합니다 선생님"

친근하고 재치도 있으신 우리 선생님

5월이네요. 봄이 가는 때예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니 참 놀랍기만 해요. 어느새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어 있고, 나비도 많이 보여요. 그만큼 '지구가 한창 활발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등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요. 친근하고 재치도 있으신 우리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우리 정도 이렇게나 쌓였네요.

스승의 날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막상 앞에 서서 이야기하려 하면 몇 마디 못 개내는 제이지만, 축하드려요 선생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위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이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점을 보면 정말 백 배 열을 해도 모자란데 부족하게나마 이렇게 편지를 써 봅니다. 솔직히 우리 2학년 3반, 정말 분위기가 많이 서먹한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어렵겠지만 아마 기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친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만났던 선생님들을 대부분 기억하는 편이에요. 모두 즐겁게 지낸 선생님들이죠. 지난간 시간도 벌써 꽤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지낼 시간도 많아요. 한번 즐겁게 지내봐요. 저도 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어떤 추억을 만들지, '몇 년 후에 과연 오래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자란 저희들 잘 부탁드립니다.

김현민(중등부)



내 일생의 자람이 십자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수난의 주간이요, 부활절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것도 모자라 죄인들에게까지 놀림을 당하셨다. 심지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엘리 엘리 리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채 세상의 썩어 없어질 것만을 좇아 살아갔고 있는 나의 모습이 오뎴뎴되었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달려왔다. 이러한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좌절จน 했다. 그러면서 어김없이 비탄의 화살은 하나님께 향했다. 왜 나의 삶은 항상 힘들고 어렵나,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말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연수가 넘으면 팔십이로 하겠다. 정말 영원한 삶을 들어왔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너무나 짧은 잠시 잠깐의 시간이다. 그 후에 있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는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한심했다. 내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또 너무나 쉽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 이기적인 욕심이 불어나고 있는 요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부활하소서"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내 일생의 자람이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조영철(청년부)

충현음악아카데미

십자가 안에서 보면



충현음악아카데미가 시작된 지도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다가고 있는데요, 트롬본이라는 악기를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인지 개강만 해 배는 아무도 등록을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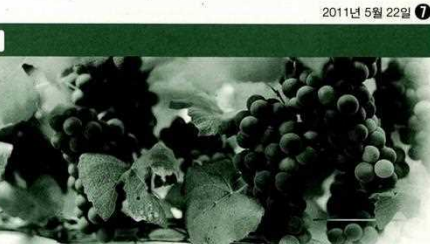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롬본 수강생 5명과 유호나눔 수강생 1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수강생이 한 분밖에 없어서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임해서 항상 수업시간은 1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음악아카데미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며 잃어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해 하다 보니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제 자신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요찬양집회와 주일찬양예배 때,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찬양을 통해 나이를 불문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음악 전공자의 입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마음이 많이 들지만, 위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안에서 보면 그분들의 진정성이 보입니다. 정말 저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도 예배 전 찬양과 헌금술, 금요찬양집회에서 찬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제가 배우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규(전, 찬양위원회)

새가족양육부 수료자

나는 포도나무요



✦ 우리 부부가 인생 황혼기예나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는 충현교회에 열심히 다닌고 있는 첫째 딸 부부의 20여 년간의 끈질긴 권유가 있었습니다. 8년간의 교육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 지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찾게 되는 등 평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양영규·송경진 부부)

✦ "내가 산을 양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1~2). 모든 일들이 다름 것들로 오는 줄 알고 전심전력을 아꼈지만 결국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입니다. (양영복)

✦ 제 아내의 가정은 불교 집안입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을 하여 제가 다니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에 하나님께 진과 응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대 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생각을 애 비로 저는 따로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나라는 가지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는 가지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분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교구	인도자
2169	임시우	영아부	1	송성	이성진	초등1부	3	2209	임세훈	청년1부	13
2170	김재은	영아부	1	송성	1990 이소정	초등1부	3	2210	한아름	중등부	16
2171	백지영	영아부	13	최희진	2011 송선진	초등1부	13	2211	이재정	영아부	17
2172	윤다현	7	김승희	2192 조준정	영아부	12	김정민	2212 이재정	영아부	19	
2173	유지우	영아부	21	안종환	2193 김희수	영아부	3	김종우	2213 홍지영	영아부	11
2174	김시우	영아부	9	이준희	2194 박희성	22	박정윤	2214 정혜미	고등부	6	
2175	최희정	영아부	12	송성준	2195 홍예은	초등1부	11	2215	김정숙	3	영명희
2176	전혜은	영아부	9	전세훈	1996 권승민	청년1부	4	권백용	2216 허수빈	대학부	5
2177	이승경	고등부	4	송승민	2197 박희성	영아부	6	김승희	2217 김다예리	외선부	25
2178	이승훈	중등부	14	김국	2198 조미숙	영아부	24	김민아	2218 이광철	영아부	5
2179	박민아	3	김정희	2199 전현진	영아부	9	김다은	2219 임종우	영아부	17	
2180	박민아	13	김국	2200 변영진	영아부	23	김민서	2220 전현진	영아부	25	
2181	이현진	13	전세훈	2201 장기용	영아부	18	조준희	2221 조나연	외선부	25	
2182	이승현	초등2부	13	전세훈	2202 임주희	18	조준희	2222 조준정	영아부	10	
2183	이재정	영아부	3	전세훈	2203 이소연	고등부	16	정혜남	2223 김희진	영아부	24
2184	신종훈	영아부	8	이희우	2204 이종태	영아부	2	김희진	2224 윤예원	유치부	22
2185	이준희	영아부	9	조준정	2205 조준희	청년1부	19	한정숙	2225 정은혜	영아부	6
2186	한현수	영아부	9	조준정	2206 전현진	중등부	16	조준희	2226 김희미	14	
2187	한현수	영아부	17	전세훈	2207 임주희	영아부	17	남종호	2227 김혜복	20	예명호
2188	김정숙	청년1부	22	박정윤	2208 이수민	영아부	13	안세현			

수치(시 83:16)의
성금요일

집중할 수는 없었다. 기쁘게도, 교회에 도착하여 착석한 후에 은혜가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설교에 앞, 어느 성직사 때처럼 우뚝한 천이 덮인 단을 보며 그리스도가 흘리신 순애의 보혈이 떠올랐다. 찬양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감내하신 열사의 치욕을 되새겼다. 은혜로운 설교와 아저씨, 나의 고난한 얼굴을 수치로 앉아서 겸손히 돌아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였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에는 우리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되새기게 되었다. 마지막 기도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내게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다. 예배 전체에 걸쳐 주님께선 세상 것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꾸짖으셨으며, 죄로 툭툭 뚫힌 나 자신에 대해 수치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다.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겸히 십자가를 지고 재물을 소망할 것을 촉구하셨다.

오늘의 복된 예배를 통해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찾고 회개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니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진노의 자식인 나를 위해 친히 몸이 찢긴 십자가의 수고 앞에, 어쩌면 나의 수고는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그 파장으로 내게 성화와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에, 이것은 대단한 특혜이

리라 느꼈다. 사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과 안락이 별 이득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듯, 사람들은 돈 앞에서 몸과 영혼을 팔아치우며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다. 또한 나는 그들이 자신만의 성공과 행복을 찾아 '안 같이' 그들 행하며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또 소위 '스승'이란 사람들은 그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만을 전하며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공의를 훼손시키며 인간의 영광과 찬사를 만드는 거짓 사도'들이 뿐이다.

진실로 심판의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작개조를 만나시기 위하여 죄 많은 여리고성을 찾으신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수치로 나이를 잃은 양을 모으고 계신다. 주님 앞에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내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입니다'라고 고개 숙어 회개할 겸손한 이들을 찾고 계신다. 성전신자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분의 몸이 참여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무엇이 진화 중요한지 깨닫길 원하신다. 나는 그분 앞에 바울 사도처럼,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약속대로 길이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설 그 승리의 때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복에 참여할 길 기도해 본다.

전진휘(대학부)

5월 **충현** 기도의 창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피수니라”

3.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3:5)이신 것으로 믿고, 그리스자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4. 교회를 독특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5. 위임목사를 십자가의 복음(골 15:3-4)을 전하는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라 주교, 영육의 간직함을 주소서.
6.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한 심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쁘신(요 15:3) 전 예배식 착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을 베푸소서.

- 모든 교구와 교외교회교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125)에 계속 강조되게 하소서.
- 1년 1년 1명(1:1:1) 전도하여 교외교회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인 13에 계속 집집전례하게 하소서.
- 복음의 오직 하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해의 단기간교(16:15)에 자기를 십자가는 믿음으로 보내는 전교사, 가는 전교사 되게 하소서.
- 종교의 재단(유주·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복음 지하촌 사설성가와 사설종교(현·합동성가회 등) 및 종문종 사관과 자전장(남표식)이 오직 사랑의 열매(15:24) 되게 하소서.
- 비행자들이 모든 혼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의 자기의 정령(2:23) 되게 하소서.

25(수)	26(목)	27(금)	28(토)	29(주일)
장지원/김동철 막 12:41-44	황의연/김철남 막 13:1-10	박지훈/이상배B 막 13:11-20	하옥성/황순란 막 13:21-31	나기태/김정운 막 13:32-37

	23 (월)	24 (화)	25 (수)	26 (목)	27 (금)	28 (토)	29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김종구	김정훈/김대웅	광지원/김동철	황의연/김철남	박지훈/이상배B	하옥성/황찬관	나기태/김정훈
설 교 본 문	메시자의 죽음	막 12:35-40	막 12:41-44	막 13:1-10	막 13:11-20	막 13:21-31	막 13:32-37

	사 회 기 도	찬 양
관공 목사	이광형 김명희	나 주 위해 살리라(호산나 찬양대·오케스트라)
주강도사	하옥성 김언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고(실용성 찬양대)
박을목	예루살렘 찬양대·오케스트라·김종 김우경/초등1부 중창	
김정훈 목사	양희호 최민자	(예배 전 찬양)
양성호 목사	하형욱 구창희	내 주님은 살아 계신 자 / 소프라노 조혜민(이마누엘 찬양대)
이성관 목사	양재용 최한진	깊이한 향유를 주께 드린 의 / 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이희식 목사	탁정원 박상대	내 영혼의 그릇이 되고 /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이정훈 목사	황인희 노은영	주 예수 대대 찬양 / 바이올린 조주연·이준(오케스트라)
정성관 목사	장지연 박성진	여의막 주중주 / 초등2부 / 16주

섬 · 기 · 는 · 분 · 들

구분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① 오전 9:40 분당 앞 출발 (6:50 남부교회, 10:20 이암역 경유)
감요찬양	저녁 10:30	② 오전 9:50 분당 앞 출발(남부교회)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그리고 1차와 2차의 주일 3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이 동시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ld Service and S/L Linking, Chinese, Mongolian, Russian, Cambodian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ld Service.

구분	시간	장 소
장년 1부	오후 12:15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소망부	오후 11:15	갈릴리움
성 랑부	오전 12:00	복지만 제1회1층
예배다부	오전 9:00(목학) 오후 12:4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 아 부	(화)오전 8:30~오후 6:00 (수)오전 10:30~12:00 (금)저녁 6:30~오후 9:00	성교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배 다 니 홀
국대대학원신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층
영유아초등신부	오전 8:30~오후 4:30	제2교육관 3층
영유아어린이	주3교과	제1교육관 107호

[illegible]

■ 부둣로 <table border="1"> <tr> <td>강장진</td> <td>강조성</td> <td>김운창</td> <td>김익환</td> <td>김정준</td> </tr> <tr> <td>2구</td> <td>2구</td> <td>10구</td> <td>15구</td> <td>12구</td> </tr> <tr> <td>나기대</td> <td>문성진</td> <td>박무현</td> <td>박근호</td> <td>박민기</td> </tr> <tr> <td>4구</td> <td>4구</td> <td>14구</td> <td>18구</td> <td>9구</td> </tr> <tr> <td>박지운</td> <td>안지현</td> <td>양재환</td> <td>유계진</td> <td>유원철</td> </tr> <tr> <td>15구</td> <td>2구</td> <td>7구</td> <td>12구</td> <td>대방</td> </tr> <tr> <td>이광현</td> <td>이희식</td> <td>장민준</td> <td>정만민</td> <td>최상민</td> </tr> <tr> <td>15구</td> <td>2구</td> <td>13구</td> <td>11구</td> <td>11구</td> </tr> <tr> <td>박정준</td> <td>하옥성</td> <td>하후철</td> <td>하형욱</td> <td>황의연</td> </tr> <tr> <td>17구</td> <td>12구</td> <td>21구</td> <td>22구</td> <td>22구</td> </tr> </table>					강장진	강조성	김운창	김익환	김정준	2구	2구	10구	15구	12구	나기대	문성진	박무현	박근호	박민기	4구	4구	14구	18구	9구	박지운	안지현	양재환	유계진	유원철	15구	2구	7구	12구	대방	이광현	이희식	장민준	정만민	최상민	15구	2구	13구	11구	11구	박정준	하옥성	하후철	하형욱	황의연	17구	12구	21구	22구	22구
강장진	강조성	김운창	김익환	김정준																																																		
2구	2구	10구	15구	12구																																																		
나기대	문성진	박무현	박근호	박민기																																																		
4구	4구	14구	18구	9구																																																		
박지운	안지현	양재환	유계진	유원철																																																		
15구	2구	7구	12구	대방																																																		
이광현	이희식	장민준	정만민	최상민																																																		
15구	2구	13구	11구	11구																																																		
박정준	하옥성	하후철	하형욱	황의연																																																		
17구	12구	21구	22구	22구																																																		
■ 여전도사 <table border="1"> <tr> <td>강덕복</td> <td>강영미</td> <td>강옥련</td> <td>김민자</td> <td>김연석</td> </tr> <tr> <td>5구</td> <td>15구</td> <td>12구</td> <td>14구</td> <td>32구</td> </tr> <tr> <td>김진경</td> <td>김영호</td> <td>김정자</td> <td>김유미</td> <td>나영실</td> </tr> <tr> <td>15구</td> <td>15구</td> <td>15구</td> <td>15구</td> <td>22구</td> </tr> <tr> <td>송길전</td> <td>오영호</td> <td>옥미라</td> <td>유인숙</td> <td>이복춘</td> </tr> <tr> <td>대방</td> <td>13구</td> <td>5구</td> <td>6구</td> <td>50구</td> </tr> <tr> <td>이복춘B</td> <td>이옥주</td> <td>이향란</td> <td>임태주</td> <td>장혜교</td> </tr> <tr> <td>12구</td> <td>18구</td> <td>22구</td> <td>12구</td> <td>19구</td> </tr> <tr> <td>전은희</td> <td>정원진</td> <td>최문순</td> <td>홍준대</td> <td>황순만</td> </tr> <tr> <td>7구</td> <td>22구</td> <td>12구</td> <td>5구</td> <td>21구</td> </tr> </table>					강덕복	강영미	강옥련	김민자	김연석	5구	15구	12구	14구	32구	김진경	김영호	김정자	김유미	나영실	15구	15구	15구	15구	22구	송길전	오영호	옥미라	유인숙	이복춘	대방	13구	5구	6구	50구	이복춘B	이옥주	이향란	임태주	장혜교	12구	18구	22구	12구	19구	전은희	정원진	최문순	홍준대	황순만	7구	22구	12구	5구	21구
강덕복	강영미	강옥련	김민자	김연석																																																		
5구	15구	12구	14구	32구																																																		
김진경	김영호	김정자	김유미	나영실																																																		
15구	15구	15구	15구	22구																																																		
송길전	오영호	옥미라	유인숙	이복춘																																																		
대방	13구	5구	6구	50구																																																		
이복춘B	이옥주	이향란	임태주	장혜교																																																		
12구	18구	22구	12구	19구																																																		
전은희	정원진	최문순	홍준대	황순만																																																		
7구	22구	12구	5구	21구																																																		
■ 경도사 박만복 8동방 ■ 서릉부 신범식																																																						
■ 전일지휘자 김승희 김진협																																																						
■ 전일연주자 이은진 장연희 한정숙																																																						
■ 신 교 사 송요한																																																						